

P9. 델파이기법에 의한 미래 농촌 사회문화적 공익기능

A Study on the prospection about Socio-Cultural Public Benefits of Rural by Delphi
Techique

김은자*, 이상영, 김영, 양희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Kim, Eun-Ja* · Rhee, Sang-Young · Kim, Young · Yang, Hee-Eun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NIAST, RDA

델파이기법이란 ‘두 사람의 판단이 한 사람의 판단보다 정확하다’는 가정에서 한 사람의 전문가보다는 전문가 집단을 이용하는 연구방법을 의미하며 이는 절차의 반복과 통제된 피드백, 패널의 익명, 통계적 집단 반응의 세가지 특성을 나타낸다. 이에 본 연구는 델파이기법을 활용하여 농촌 사회문화적 공익기능의 변화를 전망하고, 발전방향을 예측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촌·농업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자 미래에 실현될 농촌 사회문화적 공익기능의 실현시기, 중요도 등에 대하여 다수 전문가의 직관을 수렴하였다. 예측형 델파이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의사결정 자료로 이용하는 것은 의견의 적절성을 가정한다는 점이 전제된다. 완전하고 엄밀한 이론적 체계를 갖추지 못한 분야의 예측과정에 전문가의 판단을 이용한다는데 델파이 방법은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델파이 예측기법을 연구방법으로 선택한 이유는 첫째 농촌의 사회문화적 기능 미래예측은 이 방면에 관심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 의해서만이 가능하고 둘째, 이들 전문가를 모두 한 자리에 모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셋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의 입장과 연구기간의 제한 등으로 인한 능률적 방법이 필요함 등의 측면으로 인해 이 기법은 정확성, 신뢰성, 타당성 및 안정성에 있어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델파이방법은 ① 직접 지식 대신에 전문가 판단 ② 개인 대신에 집단을 이용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적 판단을 구한다. 따라서 전문가 패널을 선정하는 일은 델파이 시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과학기술 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총 40명의 패널을 구성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1차 개방형설문과 2차 구조화된 설문으로 예측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인간의 상황분석능력이나 미래예측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순미래가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희박함에 따라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우리가 도달하려는 의지를 가진 의지미래(willed)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두고 수행하였다.

설문 회수율 결과 1차 설문 표집대상 40명 중 38명의 회수로 95%의 회수율을 보였고, 2차 설문 38명 대상 38명 회수로 100% 회수율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농촌 사회문화적 공익기능 위상정도에 대해 현재는 ‘낮다(92.11%)’, 미래는 ‘높다(76.32%)’로 판단함으로써 미래 농촌 사회문화적 공익기능의 위상은 현재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농업인이 현재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농업소득 및 농외소득 증대(4.63)’, ‘농촌의 사회복지 지원 확대(4.34)’, ‘신뢰할 수 있는 농업정책(3.87)’, ‘농업·농촌에 대한 대국민 의식 전환(3.50)’ 등의 순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래 농촌의 사회문화적 공익기능의 변화에 대한 예측결과 ①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녹지공간기능 증대가 4.1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②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및 정서함양기능의 증대(4.00), ③ 자연친화적 국토발전 및 녹지환경 기능 증대(3.55), ④ 문화상품화 가치 증대(3.45), ⑤ 전통문화의 보전 노력 증가(3.34)등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1>. 이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농촌의 사회문화적 공익기능 중 녹지공간제공 기능이 다른 공익기능보다 더 많은 내용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예측되었으며, 전문가들의 동의점수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농촌의 공익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추진해야 할 정부의 주요 시책 방향에 대한 예측은 단기 미래(2005~2015)에서는 ① 농촌의 복지시설 확충 및 중시 정책(4.03)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② 친환경농법 확산 및 휴식년 지원(4.00), ③ 농촌 공익기능 연구 및 대국민 홍보강화(3.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기(2016~2030)적으로는 ① 도농 교류활성화 및 자생소득원 개발(3.84), ② 자치단체별 문화재 발굴 및 보호구역 지정(3.76) ③ 친환경농법 확산 및 휴식년 지원 대책(3.7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 이 두 가지 장단기 미래예측 결과, 단기적으로는 농촌의 복지시설 확충 및 중시 정책, 친환경농법 확산 및 휴식년 지원 대책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도농 공간차이 완화 및 교류 활성화로 지역 소득원 개발, 지역 문화재 발굴 및 보호구역 지정 등의 정부시책이 주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과 국가적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농촌의 미래 공익기능의 수요 및 전망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농촌 미래상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표 1> 미래 공익기능 변화 예측

순위	내용	동의정도		
		평균	표준 편차	최빈 값
1	친환경농법의 확산과 생태환경교육을 위한 녹지공간 제공기능이 증대될 것이다(녹지공간제공기능).	4.13	0.66	4
2	도시민들의 꾸준한 수요 증대와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로 정서함양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다(정서함양기능).	4.00	0.96	4
3	자연친화적인 국토발전계획, 생물자원에 대한 고유품종 확보 및 녹지환경기능이 증대될 것이다(녹지공간제공기능).	3.55	0.95	4
4	전문적인 새로운 문화가 개발되며 문화상품화를 통한 가치가 증대될 것이다(전통문화보전기능).	3.45	0.83	4
5	전통문화의 이해 및 보존 노력이 증가할 것이며 정부의 재정 지원과 관심이 증대될 것이다(전통문화보전기능).	3.34	0.75	3
6	완충지대 역할은 감소할 것이며 다양한 업종문화가 혼입된 지역공단의 증가가 예상된다(지역사회유지기능).	3.21	0.93	4
7	도시개발 욕구로 녹지공간제공 및 환경보존 기능은 현재수준으로 유지 또는 감소될 것이다(녹지공간제공기능).	3.18	0.93	4
8	탈농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될 것이다(지역사회유지기능).	3.08	1.05	4
8	친환경적인 편의공간이 농촌에 유지되고, 지역사회공동화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지역사회유지기능).	3.08	0.97	3
10	단기미래에는 전통문화 기능이 유지되나 일부관리를 제외하고는 그 기능이 상실될 것이다(전통문화보전기능).	2.87	1.12	2

☞ 5점척도(매우 동의안함=1, 동의안함=2, 보통=3, 동의함=4, 매우 동의함=5)

<표 2> 농촌 공익기능 향상을 위한 미래 시책 방향

내용	단기미래 (2005~2015)		장기미래 (2016~2030)	
	평균	순위	평균	순위
○ 농촌의 복지 인프라 확충 및 중시 정책	4.03	1	3.55	5
○ 친환경농법 확산 및 휴식년 지원 대책	4.00	2	3.74	3
○ 농촌 공익기능 지속적 연구 및 대국민 홍보강화	3.97	3	3.71	4
○ 도농 공간차이 완화 및 교류 활성화로 지역소득원 개발	3.89	4	3.84	1
○ 지역 문화재 발굴 및 보호구역 지정	3.87	5	3.76	2
○ 정서함양 시설 확보 및 도시민 주말 농장갯기	3.66	6	3.42	6
○ 관광 상품화 전략으로 예술 및 문화마을 추진	3.50	7	3.24	9
○ 고유한 전통문화 개발 후계자 양성 모색	3.45	8	3.39	7
○ 국토종합계획을 위한 토지의 공개념 도입	3.37	9	3.34	8
○ 전문적인 환경교육센터 설립과 환경과목 의무화	3.21	10	3.24	9

☞ 5점척도(매우 동의안함=1, 동의안함=2, 보통=3, 동의함=4, 매우 동의함=5)